

광주 북구-담양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갈등

북구, 담양 민간업체와 3년 위탁 계약...약취 민원 쇄도

담양주민들 탄원서 등 대책 요구...북구청 "기다려달라"

광주 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양군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북구와 담양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 담양군수가 북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반면 담양 주민들은 북구청장을 찾아가 면담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14일 광주 북구와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담양 군민 10여명이 송광운 북구청장을 만나 담양에서 처리하는 북구의 음식물쓰레기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북구는 지난 9월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민간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인 A업체와 3년간 음식물쓰레기를 1t당 8만3000원에

위탁 처리하기로 계약했다. 광주시가 지난 7월부터 공공음식물처리시설(송대·유덕사업소)의 1일 처리기준을 전량반입에서 정량(450t)으로 낮추자 매주 추가로 발생하는 147t의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시설에 맡긴 것이다.

하지만 A업체가 북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시작하자 담양 읍내는 물론 금성면, 용면, 향교리 등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여명은 "악취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며 담양과 북구에 위탁 사업장 변경을 건의했다.

담양군은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에 기술지원을 의뢰한 결과, A업체의 배출구 복합악취가 악취방지법상 기준치(희석배수 500배)를 20배 이상 초과한 사실

을 확인했다.

군은 또 1100t의 음식물폐기물 무단 방치와 건조시설 철거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업체는 법원에 영업정지 취소청구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담양 주민들의 화살이 원인을 제공하는 북구를 향해 돌아왔다. 담양 주민 500여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광주시와 북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형식 거주하는 주민 500여명은 "악취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며 담양과 북구에 위탁 사업장 변경을 건의했다.

하지만 북구는 예산상의 이유로 당장 위탁 업체를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공시설의 경우 t당 4만5000원이지만 A업체의 경우 8만3000원이고, 남원·익산 등 타지역 업체에 맡길 경우 11만~

13만원으로 처리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연간 22억4500만원 수준의 처리비용도 최대 13억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날 북구청장을 만난 담양 주민들은 위탁사업장 변경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후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다.

담양군 한 마을 이장은 "겨울이어서 그나마 악취 피해가 덜한 편이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구토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힘들게 생활해 왔다"며 "내년 봄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A업체가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한 뒤 북구 등 타지역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당장 담양 주민들의 피해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내년 6월 공공음식물처리시설이 정량반입 제한을 해제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청 시민숲 '한복 전시회'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한복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후원하는 한복전시회가 14일 광주시청 시민숲에서 개막했다. 오는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를 중심으로 성업 중인 한복 상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윤장현 시장 "지산유원지 리프트 안전 문제 발견시 폐쇄"

광주 지산유원지 리프트 추락 사고(광주일보 12월14일자 6면)와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은 14일 안전상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 내 리프트를 현장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공신력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고, 관할 기관의 수시점검을 받았음에도 해당 리프트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운행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교통안전공단에 공문을 보내 문제를 제기하고, 시 차원에서 더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안전점검을 벌여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광주 유일한 리프트가 더 확

성화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안전점검 이후 전면 개선의 의지도 피력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윤 시장은 리프트의 안전바 등이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업체 측에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이 현장사고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리프트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리프트에서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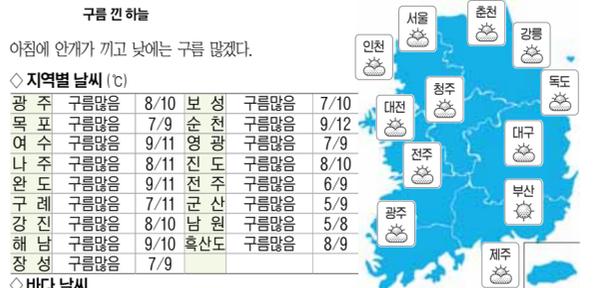
인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상승하던 리프트가 뒤쪽으로 밀렸고 그 여파로 탑승객 2명이 추락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리프트 운영업체 측은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리프트와 와이어를 연결하는 기계장치인 완삭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탑승자들이 장난을 치며 몸을 흔들다 리프트가 뒤로 밀렸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3 해질 10:16
해짐 17:22 달뜨기 21:16



구름 갠 하늘

아침에 안개가 끼고 낮에는 구름 많겠다.

◇지역별 날씨 (°C)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8/10 | 보성 | 구름많음 | 7/10 |
| 목포 | 구름많음 | 7/9 | 순천 | 구름많음 | 9/12 |
| 여수 | 구름많음 | 9/11 | 영광 | 구름많음 | 7/9 |
| 나주 | 구름많음 | 8/11 | 진도 | 구름많음 | 8/10 |
| 완도 | 구름많음 | 9/11 | 전주 | 구름많음 | 6/9 |
| 구례 | 구름많음 | 7/11 | 군산 | 구름많음 | 5/9 |
| 강진 | 구름많음 | 8/10 | 남원 | 구름많음 | 5/8 |
| 해남 | 구름많음 | 9/10 | 축산도 | 구름많음 | 8/9 |
| 장성 | 구름많음 | 7/9 | | | |

◇바다 날씨

|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남부 | 앞바다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1.0~2.0 |
| | 면바다 | 북서~북 | 1.0~2.0 | 북서~북 | 1.5~2.5 |
| 남해서부 | 앞바다 | 서~북서 | 0.5~1.5 | 서~북서 | 1.0~2.0 |
| | 면바다(동) | 서~북서 | 1.0~2.0 | 서~북서 | 1.5~2.5 |
| 면바다(서) | 서~북서 | 1.0~2.0 | 서~북서 | 1.5~2.5 | |

◇물때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 04:20 | 09:34 |
| | | 17:00 | 22:12 |
| 여수 | | 11:38 | 04:59 |
| | | 23:46 | 17:46 |

◇주간 날씨

| 16(수) | 17(목) | 18(금) | 19(토) | 20(일) | 21(월) | 22(화) |
|-------|-------|-------|-------|-------|-------|-------|
| | | | | | | |
| 2/5 | -2/3 | -2/6 | -1/7 | 0/8 | 3/9 | 3/10 |

◇생활지수

| | |
|--|------|
| | 관심 |
| | 체감온도 |
| | 낮음 |
| | 동파 |
| | 보통 |
| | 뇌졸중 |

경찰, 총선 수사전담반 편성

광주·전남 27개 팀 200명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불법 선거운동 차단에 나섰다. 광주·전남 수사전담반은 27개 관서에 200명으로 편성됐다.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특히 '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의 경우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 2월1일 선거 24시간 대응체제로 전환한 뒤 3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총력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수사전담반은 27개 관서에 200명으로 구성됐다. 광주는 지방청과 5개 경찰서에 각 1개팀씩 총 6개팀 45명이다. 전남은 지방청과 21개 경찰서 등 총 22개팀 155명으로 편성됐다.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특히 '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의 경우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 2월1일 선거 24시간 대응체제로 전환한 뒤 3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총력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현역 임명 날짜 인터넷 신청하세요

병무청은 내년에 현역병 임명을 희망하는 사람의 임명 날짜 신청을 16일 10시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역병 임명 대상자들은 내년 2~12월, 7~12월, 10~12월 3개 시기별로 하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3개의 임명 날짜를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임명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명 부대도 이때 결정된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날에 임명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경쟁률이 높으면 임명 자체가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결과는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개인별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병무청은 이달 24일 전산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폐물 안전하게 이송하여 보관하겠습니다





- ◆ 중·저준위 방폐물 해상운송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 국내 최초로 주민이 직접 참여한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 안전성 검증단' 활동을 통해 해상운송 안전성에 대해 투명한 검증을 완료 하였습니다.
- ◆ 방폐물은 전용 운반선에 의해 안전하게 이송됩니다.
 -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선박 안전성 '합격'을 받은 전용 운반선 '청정누리호'는 이중선체, 이중엔진, 최신장비를 보유한 안전한 선박입니다.
- ◆ 환경공단은 영광군 어촌계 등과 보상금 지급에 합의하고 보상을 진행중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 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세계 최고의 친환경적 방폐물관리 전문기관